



GIST(광주과학기술원) 보도자료

<http://www.gist.ac.kr>

보도 일시

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

보도자료

대외협력팀 김미연 팀장

062-715-2020 / 010-5302-3620

담당

대외협력팀 이나영 행정원

062-715-2024 / 010-2008-2809

자료 문의

지구·환경공학부 송철한 교수

062-715-3276

GIST 지구환경공학부 송철한 교수,

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위촉

- 6월 10일(월) 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논의

- GIST(지스트, 총장 김기선) 지구·환경공학부 송철한 교수가 대통령 직속 ‘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(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,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, 위원장 반기문)’ 본 회의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.
 -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4월 29일 출범식 이후 6개 관련 부처 장관(환경부, 과기정통부, 외교부, 산업자원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), 각 지자체장, 6개 정당 추천 국회의원 6인 및 사회 각계 대표 등 44명으로 위원 구성을 완료하였다.
- 6월 10일(월)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회의로 2차 본회의를 열어 국가기후환경회의 추진 현황, 주요 활동계획 안건 등이 보고되었으며, 지난 1일 열린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검토하였다.
 -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치적 성과와 다양한 이

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미세먼지 해결책을 내놓자는 취지에 따라 구성됐다.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위원장직을 맡았다.

- GIST 송철한 교수는 “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오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 향후 대한민국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송 교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26인(국가 기구 당연직 제외) 본회의 위원 중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5명 중 한 명으로 본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, 동시에 본 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조직 중 과학기술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. <끝>